

(주)HNC 임재영 대표



# 과감한 투자로 성공의 그림을 그리다

(주)HNC 임재영 대표

'혁신', '창조', '소통'. 이 세 단어는 어느 기업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임재영 대표를 수식하는 말이다. 경영의 혁신을 꾀하고, 비즈니스와 연계되는 모든 것을 창조하며, 인간과 기술의 소통공간을 창출하는 HNC([www.hnceng.com](http://www.hnceng.com)) 임재영 대표. 그의 성공비결을 들어본다.

진행·글\_편집실 | 사진\_신상은

## — 위기에서 탄생한 HNC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8년. 지금의 미국발 경제 위기만큼이나 힘든 시기였다. 흔히 'IMF사태'라고 불리던 그때 그 시절. LG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던 임재영 대표는 LG엔지니어링이 현대반도체와 합병되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듬해인 1999년 임재영 대표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LCD 생산 환경에 필수적인 '클린룸'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 이제 HNC는 클린룸 업계의 대표주자로 회자되어지고 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클린룸 시스템은 첨단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디지털 생산 환경에 필수불가결한 산업분야다.

임 대표는 창업 당시만 해도 국내에선 전무한 사업 아이템이었던 클린룸 비즈니스를 HNC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온도, 습도, 조도 등의 요소를 제어해 제품 생산에 최적의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었다.

#### 노하우와 크리에이티브로 승부한다

창립 10년. 업계 수위를 다투게 된 HNC의 약진에는 임 대표의 과감한 경영전략이 주효했다. 클린룸 시스템 기술개발과 사업영역의 확장, 인재 투자도 성공의 동력으로 꼽힌다.

우선 HNC 주력 사업인 클린룸 시스템의 기술개발은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트렌드와 그 속도를 같이 했다. PDP, LCD 기판의 대형화에 발맞춰 개발한 '기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그 대표적이 예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클린룸용 배기구 조립체' 특허를 취득했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로 인해 먼지를 천정에서 바닥까지 직선으로 빨아들일 수 없는 공장 환경일 경우, 장비를 둘러싼 클린룸 부스 측면 아래쪽에 국소 시스템을 설치해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이처럼 HNC의 기술 개발 방향은 '고객의 성향에 기술을 맞출 수 있는' 그야말로 인간과 기술의 소통을 꾀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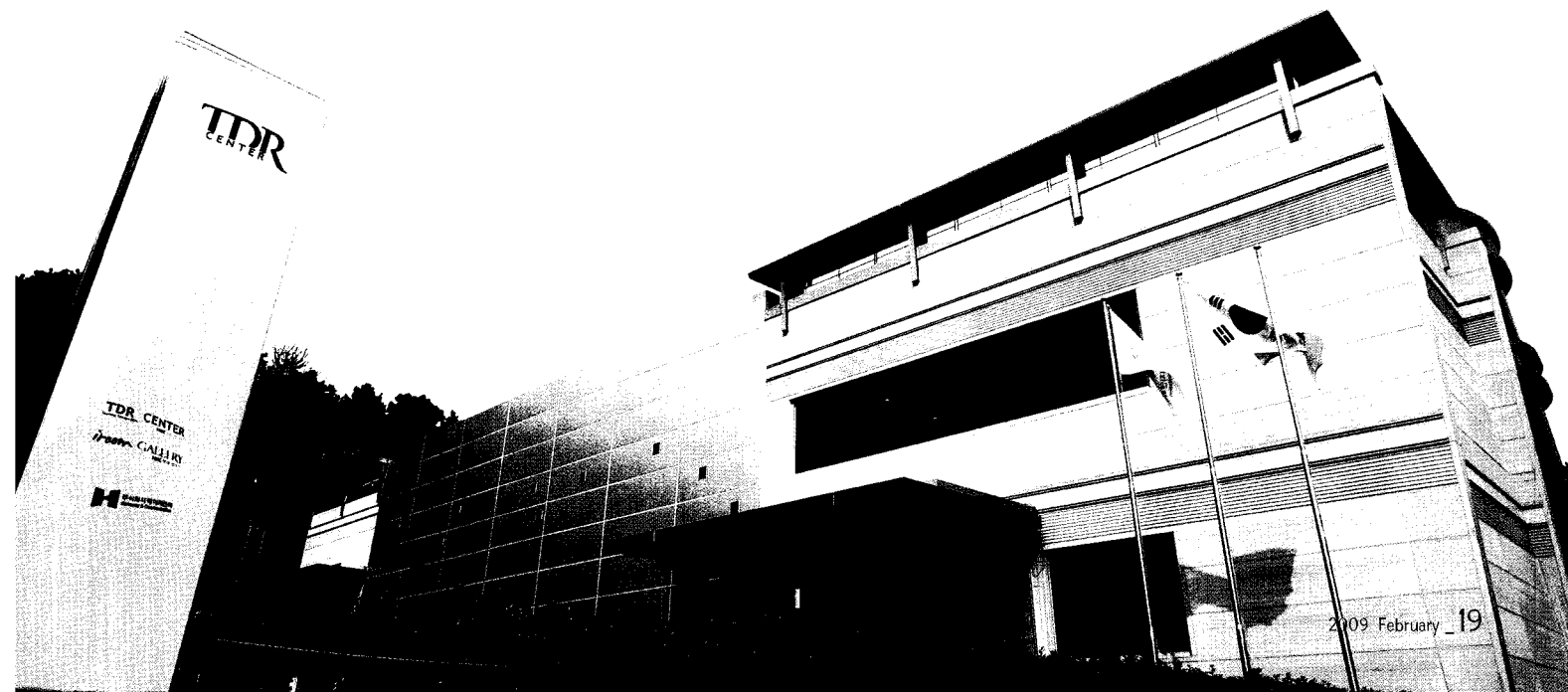
두 번째 임 대표의 성공비결은 과감한 사업영역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첨단 디지털 생산 환경에 국한됐던 클린룸 시스템을 미술시장으로 이끈 것이다. 임 대표는 "클린룸 시장에서 5위권, 연 매출 300억~400억 원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난 수년간 매출이 더 이상 오름세를 보이지 않자 새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고민해왔다"고.

이러한 임 대표의 고민 해결에는 뜻밖에도 새로운 재테크 분야로 급부

상하는 미술시장이 실마리가 됐다. "클린룸 시스템의 항온항습 기술을 이용하면 예술작품을 훨씬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겠다"는 임 대표의 발상의 전환을 기점으로 HNC는 아트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됐다. 임 대표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 현대미술전을 주최한 예술기획사 'AAW(Asian Art Works, Inc.)'를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아트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였다. 클린룸 시스템을 접목시켜 작품의 성격에 따라 방의 조명과 온도, 바람, 향기 등을 조절하며 새 전시공간을 창조했다. 아트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HNC의 연구소, TDR센터에 갤러리를 만들어 연구동 전체에 200여 점의 회화, 조각, 설치미술 작품을 전시했다. 처음엔 '그림 살 돈으로 공장 설비를 정비하자'는 비판도 많았지만 지금은 HNC만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 그 이유인 즉 아트 비즈니스가 단순히 경영전략이 아니라 조직문화에도 일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을 보며 감성 훈련이 된 직원들이 개발한 클린룸 시스템은 공조 설비 기업답지 않게 디자인 감각이 탁월하다는 입소문을 타게 됐다. 기술 연구단지인 TDR센터가 기술적 퀄리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은 물론 감성디자이너인 만난 복합연구개발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아트 비즈니스로의 사업영역 확장은 건축사업까지 이어졌다. 현재 HNC는 계양구청 멀티상영관 설계 및 시공과 꿈의 120억 원 규모의 쇼핑몰 인테리어 공사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다. 임 대표의 발상의 전환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든 셈이다.

세 번째 비결은 인재투자에 있다. HNC의 사업은 제조사업이 아닌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무형의 서비스와 창의력이 HNC의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의 만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재투자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임 대표의 지론이다. 신



입사원 채용부터 가능성 있는 인재를 꼼꼼히 선발한다는 HNC. 중소기업에서는 높은 수준의 급여 제공은 물론, 1년에 한 번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는 '인재 개발 면담', CEO와 떠나는 1박 2일 여행인 '올빼미 우는 날', HNC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정한 자기개발 활동을 해야만 승진이 가능한 '학점제도' 등을 시행해 회사와 사원 양쪽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인재개발 시 임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고객만족 최우선'이다. "조직문화와 규율은 기업의 기준이 아닌 고객에게 그 기준을 두어야 한다"며 "모든 기업 활동의 평가는 고객으로부터 이뤄지며, 고객 중심의 규율은 개개인의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는 임대표.

무진(無塵)기기 제품군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 기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한 클린룸 브랜드 'VUUM'은 임 대표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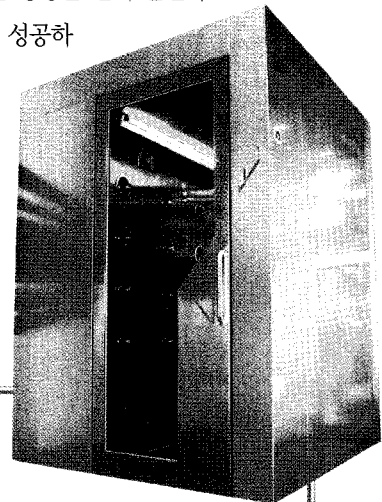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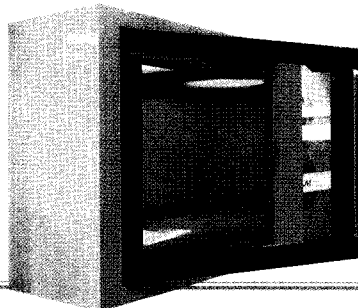
**모든 한계 뛰어 넘는 HNC가 될 것**

임 대표가 말하는 HNC의 미래는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인 컬처노미(Culture&Economy)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펼쳐지는 녹색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의 진출로 국가 발

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기업이 되는 것이다. 임 대표는 "첨단 생산 환경을 넘어 건강과 환경, 엔터테인먼트 환경과 같이 인간과 기술이 만나는 공간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개념의 소통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HNC의 미래비전을 전했다.

임 대표는 예비 벤처창업자를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먼저 장사를 할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판단하라는 그.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장사요, 사람을 벌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라며 "눈앞의 수익에 연연해 하지 말고, 넓게 멀리 보는 혜안을 가지고 창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되는 시기가 사업을 접을 때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따끔한 충고도 곁들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할 수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는 어려운 모든 상황을 먼저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온 기회를 잡고 성공하는 왕도가 아닐까.



**HNC Product Portfolio**  
Harmony & Communication

**차세대 크린룸 무진기기 'VUUM'**

첨단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클린룸 시스템. HNC가 개발한 VUUM은 품질과 디자인을 강화시킨 신개념 무진기기로 HEPA BOX, AIR SHOWER, RELIEF DAMPER, PASS BOX 등 클린룸에 들어가는 장비 제품군의 전체를 아우르는 브랜드다. VUUM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클린룸 장비라고 할 수 있으며, VUUM의 디자인은 감성시대를 맞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인간중심의 디자인 사상을 펼치고 있다.

**IT, BT, 일반 산업 분야의 전문 종합건설회사 '(주)Postenc'**

포스티엔씨는 HNC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회사로 최첨단 산업 FAB부터 인텔리전트 빌딩에 이르기까지 첨단 건축분야의 리더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포스티엔씨는 최적 설비 시스템, 유비쿼터스 시스템 등 신공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인간과 기술이 소통하는 공간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업실적 : (주)신아시스템 신축공사, 한국콜매(주) 제약공장 증축 및 내부구조 변경, LG전자 기술원 보수공사 등

**예술로 감성 공간 창출하는 'Asian Art Works, Inc.'**

HNC는 아시아 현대미술전을 주최하는 미국의 예술기획사 AAW(Asian Art Works, Inc.)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HNC의 클린룸 공조 설비 기술과 미술전시 사업을 접목시킨 것. AAW의 전시 시설은 클린룸에 들어가는 향온향습기술을 이용,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예술작품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한다.

